



## 대한인쇄문화협회·한국이앤엑스와 공동주최 3만여 명 내방, 국제컨퍼런스 등 풍성한 행사 디지털인쇄로 열어가는 그래픽세상

글 |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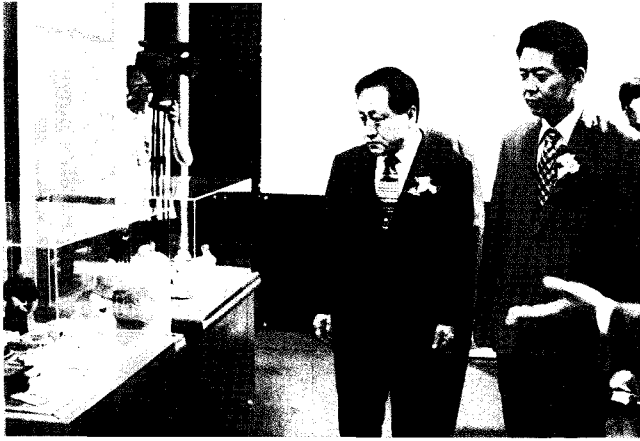
급변하는 인쇄산업의 비전을 제시해 준 국내 최대 인쇄인의 축제인 제18회 국제인쇄산업대전(KIPES 2011)이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 전시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9월 28일 오후 2시에 열린 개막식에는 윤문한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장, 공동주최자인 김남수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과 김충한 한국이앤엑스 회장을 비롯하여 이충원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남원호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진배 대한인쇄기술협회 회장, 이창의 한국잡지협회 회장, 한영수 한국합성수지가공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수창 한국스크린인쇄공업협회 부회장, 필리핀인쇄협회 John L. Choa 회장, 몽골인쇄협회 Natsag Jargalsaikhan 전 회장, 중국인쇄기자재협회 Xu Jin Feng 부회장, 출판사 대표로 히로세 데츠오 다이니폰스크린코리아 사장, 김천주 캐논코리아 사장, 최대광 동양인크 사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인쇄문화협회와 한국이앤엑스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전시회는 킨텍스 제1전시장 5홀에서 한국,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등 23개국 210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1만여㎡의 규모로 개최됐다. 이번 전시회는 킨텍스 제2전시장의 개장에 맞춰 역대 최고 규모인 10만8,000㎡로 열린 한국산업대전으로 국제플라스틱·고무산업전, 한국기계전, 금속산업대전 등이 합동으로 개최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 디지털인쇄기 한눈에

KIPES2011은 그동안 격년제로 개최하여 온 것을 특수인쇄전시회인 PRINKOR와 통합하여 매년 개최로 변경한 첫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특히 KINTEX 제2시장 개장과 때를 맞추어 플라스틱·고무전, 전기, 금속, 공구, 기계전시회 등 6개의 자본재 전시회가 동시에 개최한 한국산업대전으로 진행되어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았으나 방문객



김남수 대한인쇄문화협회장과 윤문한 문화체육관광부차관이 대한인쇄문화협회관을 둘러보고 있다.



국제인쇄포럼의 발제자들. 케네스 엠 한센 대표이사, 알론 바 사이니 HP부장, 히로시 카가와 일본 IBC대표, 김남수 대한인쇄문화협회장

수, 참가업체, 상담객수 등에서 격년제 개최에 비해 뒤쳐지지 않는 실적을 이루었다.

‘디지털인쇄로 열어가는 그래픽세상’을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에서는 최근 IT기술과 솔루션을 기반으로 인쇄산업을 주도하는 세계적인 디지털인쇄업체들의 최신 제품과 한층 다양해진 국내외 후가공관련 솔루션, 고품질 인쇄를 지원하는 다양한 특수지, 컬러매니지먼트 제품 등 인쇄산업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최신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었다.

또한 인쇄방식과 인쇄공정의 디지털화로 종이뿐만 아니라 금속, 플라스틱, 목재, 타일, 아크릴 등 소재에 구애됨이 없는 인쇄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런 소재의 고급 인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최근 수년간 지속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는 친환경 미래 인쇄기자재들도 선보였다.

### 세계 인쇄시장의 트렌드와 비전을 전한 국제인쇄포럼

‘세계 인쇄시장의 트렌드와 비전’을 주제로 국제인쇄포럼이 지난 9월 28일 킨텍스 컨퍼런스룸 213호실에서 250여명의 인쇄인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룬 가운데 진행됐다. 대한인쇄문화협회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국제포럼은 대한인쇄문화협회 김남수 회장이 ‘한국 인쇄산업 동향과 수출 전략’을 주제로, 일본IBC출판그룹 히로시 카가와 대표가 ‘일본의 출판인쇄시장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한국HP 아론 바사이니 부장은 ‘디지털인쇄의 미래’, 만로랜드코리아의 케네스 엠 한센 대표는 ‘오프셋인쇄산업의 경향과 전망’이라는 각각의 주제로 발표했다.

처음으로 발표한 김남수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은 “전자출판 등의 환경적인 변화에 기인하는 국내시장 수요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해외시장 개척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며 특히 미국시장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잠재력이 있는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IBC출판그룹의 히로시 카가와 대표는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새로운 트렌드를 선택하는 동력

이 디지털 기술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찾는 것이 출판인쇄시장의 미래를 여는 관건”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로 강연한 HP의 알론 바 사이니 부장은 “오늘날 디지털인쇄기의 대명사인 인디고는 지난 1993년 이후 18년간 지속적인 성능개선으로 효율성을 높여 고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디고디지털인쇄기는 맞춤화 및 개인화에 적합해 현재 및 미래의 많은 디지털인쇄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로 강연한 만로랜드코리아의 케네스 엠 한센 대표이사는 “새로운 전자기기와 소셜커머스의 확대는 많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며 오는 2020년에는 신문시장은 급격한 변화, 소비시장은 완만한 변화, 출판시장은 어려움 속에서도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 컨퍼런스, 세미나 등 풍성한 행사

키페스2011 기간에는 다양한 컨퍼런스와 세미나가 함께 열려 전시회를 찾은 관람객들에게 최신 트렌드와 정보를 제공해 호응을 받았다.

9월 28일에는 대정인터내셔널과 미디어머신 등이 주관한 인쇄 기술세미나가 열려, ‘디자인시작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UV 판재의 특성 및 UV CTP의 미래’ 등을 주제로 다뤘다. 29일에는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인쇄응용산업 세미나가 열려 ‘융합기술시대에서의 인쇄전자 기술’, ‘인쇄기술을 이용한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기술’ 등에 주제로 진행되었다. 9월 30일에는 디지털 퍼블리싱을 대주제로 한국이엔엑스와 인쇄계가 공동 주관한 국제컨퍼런스가, ‘컬러 매니지먼트’, ‘스마트 퍼블리싱’ 등을 주제로 열렸다.

이외에도 컬러매니지먼트와 관련되어 한국인쇄학회 오성상 부회장이 ‘Why Digital Printing?’을 주제로 강연했으며 디자인세미나에서는 ‘다시 보는 한글, 그리고 캘리그래피’, ‘새로운 DNA의 디자인’을 주제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 기획2 국제인쇄산업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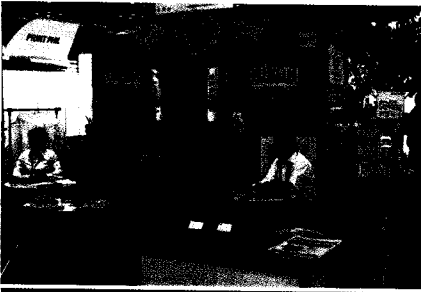
한국 후지제록스



다이니폰스크린 코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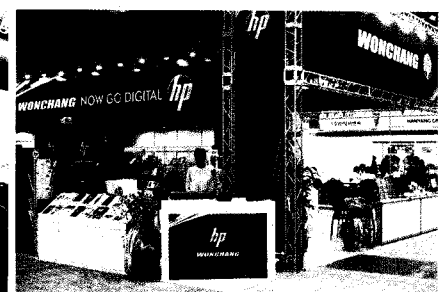
만로랜드 코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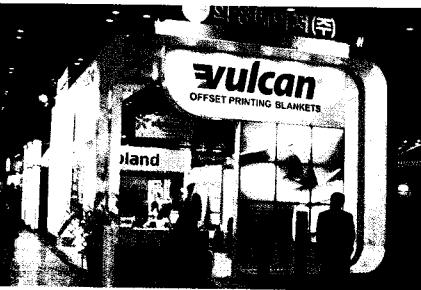
기선



동양잉크



한국H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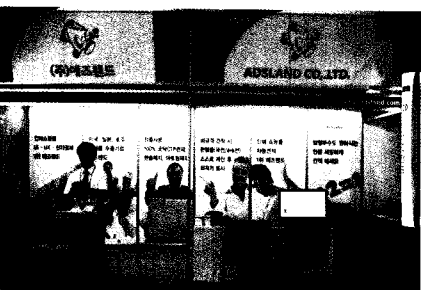
화성메이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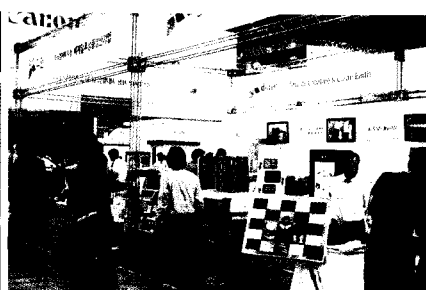
대정인터내셔널



성진에드컴



애스랜드



디젠



케이웬에스컴퍼니



(주)와이피엘



현대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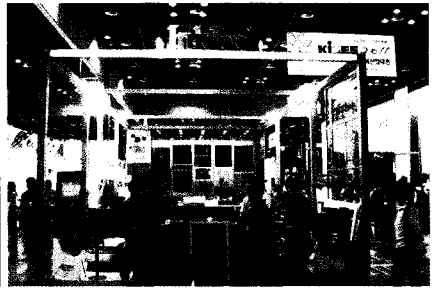
(주)성원에드피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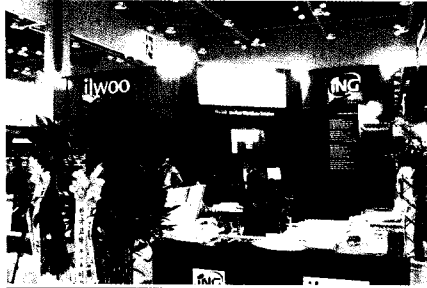
마카시스템 (주)



메탈스틱



잉크테크



일우씨엔에스 · 아이엔지 프리프레스 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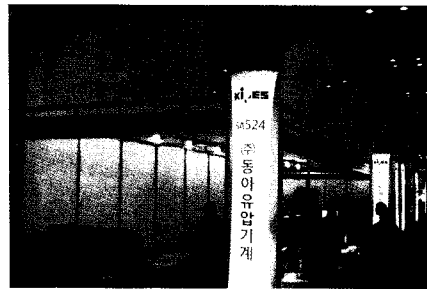


주식회사 위



(주)브이에스테크

# KIPES 2011



(주)동아유압기계



아주포커스 (주)



(주)대우피앤시



건설상역 (주)



삼화당피엔티



클론코리아



한국가프라



(주)태향인쇄



피투에스 (주)